

파운드 오브제(Found object)를 융복합한 작품연구: 매체의 활용방식을 중심으로

박경주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도예유리디자인전공 부교수

A Study on works converging Found objects: Focusing on how to mix the media

Kyungjoo Park

Professor,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rt Major in Ceramic · Glass design

요 약 20세기 이후 산업화한 소비사회에서 생산된 기성품들은 '파운드 오브제 (Found object)'라는 새로운 소재로 미술작가들에게 채택되어 작품 속에서 넓은 의미로 재해석 되고 있다. 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은 표현양식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확장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성한다. 현대미술에서 최초로 파운드 오브제가 사용된 1912년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Still Life with Chair Caning> 이후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그리고 팝아트를 통해서 파운드 오브제의 전개를 파악하고 20세기 후반 파운드 오브제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는 파운드 오브제가 작품에서 혼합된 방식에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오브제', '변용된 오브제', 그리고 '차용된 오브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작가와 작품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파운드 오브제를 융복합한 작품은 대상을 물질적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미술의 전통적 규범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념의 미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제어 : 융복합, 파운드 오브제, 가공되지 않은 오브제, 변용된 오브제, 차용된 오브제

Abstract Ready-made products produced in the industrialized consumer society after the 20th century have been adopted by artists as a new material called "Found object," and are reinterpreted in a broad sense in their works. The method of giving new meaning using this creates a new paradigm that is expanded conceptually as well as expression style. After Pablo Picasso's <Still Life with Chair Caning> in 1912, when the Found object was used for the first time in contemporary art, we examine the development of objects through Dadaism, Surrealism, and Pop Art, and the expression of Found objects in the late 20th century. In this study, the artists and their work are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ree types: 'Unprocessed objects', 'Transformed objects', and 'Tenant objects', depending on how the Found object is mixed in works. Through this study, I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a work incorporating a Found object not only develops the object materially, but also allows the practice of free concept art to escape from the traditional norms of art.

Key Words : *mixed media, Found object, Unprocessed object, Transformed object, Tenant object*

1. 서론

1.1 연구목적

동시대 미술은 한가지 재료에 의존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재료를 혼합으로써 폭넓은 표현양식을 추구한다. 산업화된 현대 소비사회에서 생산된 기성품들은 미술작가들에게 ‘파운드 오브제(Found object)’ 즉, ‘발견된 오브제라’는 새로운 소재로 채택되어 작품 속에서 넓은 의미로 재해석 되고 있다. 파운드 오브제는 시대성을 반영하면서 표현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은 표현양식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확장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성한다.

본 연구는 미술에서 파운드 오브제를 정의하고 이를 융복합한 20세기 중반 이후의 미술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미술에서 파운드 오브제의 발생과정과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소재로 한 작품에 관해서 연구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오브제 중에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운드 오브제를 융복합하여 상징적인 의미가 형성된 작품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파운드 오브제의 의미와 전개양상을 알아보고, 파운드 오브제가 작품에서 활용된 방식에 따라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파운드 오브제의 고유 형태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작품의 소재로 가지고 온 ‘가공되지 않은 오브제’, 파운드 오브제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형상으로 재구성한 ‘변용된 오브제’, 그리고 사물의 이미지만 빌려와서 작가가 선정한 소재와 기술로 새롭게 제작한 ‘차용된 오브제’, 등으로 분석한다. 이처럼 일상에서 발견한 사물이 미술의 영역을 확장 시키면서 재해석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2. 파운드 오브제의 정의

2.1 파운드 오브제의 발생과 전개

현대미술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인 오브제(object)는 라틴어 오브젝툼(objectum)에서 부터 비롯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객체 또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오브제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대개 ‘보여

지거나 만져지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인식되는 것, 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주체(subject)가 인지할 수 있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인 것’이다.”[1] 라고 할 수 있다.

파운드 오브제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이지만 작가의 의도에 따라 사물의 본질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재해석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기계 제작된 일상용품으로서 기성의 물건이지만, 미술작품이나 미술작품 일부분으로서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은 오브제”[2]를 의미한다.

현대미술에서 최초로 파운드 오브제가 사용된 것은 1912년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가 제작한 콜라주(collage)의 일종인 파피에 콜레(Papier collé), <Still Life with Chair Caning> Fig. 1에서이다. 이 작품에서 최초로 파운드 오브제인 등나무 무늬가 인쇄된 유포와 밧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서, “콜라주의 창안은 피카소의 분석적 큐비즘 시기의 빛나는 성취에 자리매김한다. 그것은 일루저니즘을 배제한 편평한 평면의 구축과 함께 시각 그 자체의 작동을 보여준다.”[3]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입체주의 화가들은 다시점(多視點)을 통해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던 노력이 오히려 실제의 현실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자 실제 사물을 부차하여 이 한계를 해결하려 했다.”[4]라는 것이 파운드 오브제가 작품에서 사용된 이유이다.



Fig. 1. Still Life with Chair-Caning, Pablo Picasso, 1912, oil and oilcloth on canvas, with rope frame, 27 x 35cm

파운드 오브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진 것은 1913년 다다이즘 작가 마르셀 뒤샹의 (Marcel Duchamp, 1897~1968) 작품 <Bicycle Wheel> Fig. 2이다. 산업사회로부터 제작된 기성품인 자전거 바퀴와 의자를 결합해서 사물의 본질적인 의미가 변화되고 작품으로써 미적 가치를 부여했다.

뒤샹이 작품에서 사용한 기성품을 레디 메이드 오브제(Ready made object)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레디 메이드는 새로운 맥락에서 또 다른 기호로 작용 하는데[...] 자전거로서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바퀴는 또 다른 의미의 전달체가 되었고 그것은 물리적 위치의 전이— 즉 자전거에서 이탈되어 의자와 결합함으로써— 를 경험한다. 오브제의 성격이 예술적으로 편입되고, 예술적 공간과 일상적 공간이 서로 침투하여 경계가 모호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5] 이는 예술의 공간에서 일상의 기성품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을 떠나서 상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Fig. 2. Bicycle Wheel, Marcel Duchamp, 1951. Metal wheel mounted on painted wood stool, 129.5 x 63.5 x 41.9cm

파운드 오브제는 191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에서 더욱 발전된 면모를 보인다. 다다이즘의 작가들이 정신적 무질서 속에서 반항적인 의미로 레디 메이드 오브제를 사용했지만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인간의 일상 기억이 잠재된 오브제를 통해서 인간 내면에 잠재된 욕망을 상징적으로 표출한다.

특히 “초현실주의자들은 산업 발전기의 생산물이지만 인간적 자취가 남겨져 있는 벼룩시장의 물건들을 종종 활용했다.”[6]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파운드 오브제는 일상과 가상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초현실주의 오브제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생산된 오브제가 생산자의 즐거움과 결부되는 것이다. 창작자가 만드는 생산물이 그 자신 이 내적 욕망을 표출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은 노동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기계적 체제에 대한 공격이자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예술가들의 생산은 구축 주의자들의 그것과는 달리 산업적 기술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예술가들의 내적인 충동과 일치되는 것이었다”[6] 라고 간주한다.

1960년대 팝아트(Pop Art) 작가들은 대량생산과 소

비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내는 상품, 빈티지, 폐품 등을 그대로 작품에 도입하거나 이 사물들의 이미지를 차용했다. 클라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 1929~)는 <Soft Toilet> Fig. 3에서 일상에 서 볼 수 있는 사물의 이미지를 빌려 부드러운 조각으로 재현했다. 또한, 아르만 페르난데스(Armand Fernandez, 1928~2005)의 <Colère Musicale> Fig. 4에서는 첼로를 해체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파운드 오브제로서 첼로의 본질이 변화되었다.



Fig. 3. Soft Toilet, Claes Oldenburg, 1966, Wood, vinyl, kapok, wire, plexiglass on metal stand and painted wood base 1449 x 702 x 71.3cm



Fig. 4. Colère Musicale, Armand Fernandez, 1962, broken cello on a wooden pannel, 183 x 132 x 23cm

1960년대 파운드 오브제의 출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예술적 가치는 한편으로 문화적 변동에 의해 결정되었고 오브제의 출현은 그 가치를 사방에 퍼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당대의 다양한 학문으로서 철학, 문학, 심리학, 사회학은 예술창조 활동에 자극을 주었다. 이제 전통적인 가치는 변화되기 시작했다. 단절의 원리는 창조의 척도가 되었고 그것은 가치의 영역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7] 이처럼 20세기 초 마르셀 뒤샹이 파운드 오브제를 작품에 사용했을 당시 반 미술적 행위라고 부정적으로 판단되던 사고가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추세에 따라 새로운 미학으로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파운드 오브제의 일상성에 대해서, “오브제를 다루는 작가들은 공통적으로 주변의 하찮고 보잘것없는 세속의 물건들과 사물들에 과도한 애착과 편집증적 탐닉을 보이기도 하고, 이를 가지고 노는 유희에 충만한가 하면, 현실에의 집착과 세속성에 대한 퇴행적인 애정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약간의 병리적인 현상과 함께 낯설고 기이한 것에 대한 매료, 작은 것들에 대한 의미 부여, 사소한

장난, 교란, 간섭이나 판지절기 식의 방법론 같은 것들이 은연중 포개어진다.”[8] 라고 사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술성과 일상성이 공존하는 파운드 오브제를 융복합한 작품은 하나의 미술 양식으로 규정되었으며 20세기 후반 이후 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2.2 파운드 오브제의 표현

2.2.1 가공되지 않은 오브제

파운드 오브제의 원래의 형태를 변형하지 않고 직접 매체로 사용된 ‘가공되지 않은 오브제’는 작가의 경험이나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설치된다. 작품 속에서 원래의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용하여 상징적 메시지를 생성한다.

쿠바 출신으로 뉴욕에서 활동하던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Félix González-Torres, 1957~1996)는 일상적인 사물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유로 풀어낸다. 둥근 벽시계, 거울, 커튼, 전구 등을 감정이입을 최대한 절제하고 간단하게 설치한다. 곤잘레스 토레스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작품을 만들어 실제의, 그리고 상상의 죽음, 유실과 대면했다[9]. 그는 <Untitled> 라는 제목으로 같은 물체를 한 쌍으로 보여주는 작품을 연작으로 발표했다. <Untitled(Perfect Lovers)> Fig. 5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동일한 두 개의 시계가 나란히 걸려있는데 동성 연인의 죽음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 파운드 오브제로서 시계는 작가의 동성에 관계를 반영하지만, 일반적인 신체를 상징하기도 하며 사랑에 대한 은유로 해석할 수 있다[10].



Fig. 5. Untitled(Perfect Lovers), Felix Gonzalez-Torres, 1991, Clocks, paint on wall, 35.6 x 71.2 x 7cm

제프 쿤스(Jeff Koons, 1955~)는 1980년대 자본주의의 상업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연작을 발표한다. <New Hoover Convertibles, Green, Blue; New Hoover Convertibles, Green, Blue; Double decker> Fig. 6 는 4개의 진공청소기를

멸균된 형광등이 켜진 유리 진열장에 설치한 작품이다. 가공하지 않은 산업재료를 있는 그대로 조형요소로 제공하는 미니멀 조각과 대량생산, 소비되는 일상용품을 소재로 활용한 팝아트의 중간 지점에서 독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11] 이 작품에서 진공청소기의 역할은 예술의 상품화를 통해서 소비주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중들의 소비에 대한 욕망을 나타낸다.



Fig. 6. New Hoover Convertibles, Green, Blue; New Hoover Convertibles, Green, Blue; Double decker, Jeff Koons, 1981-1987, Four vacuum cleaners, acrylic, and fluorescent lights, 294.6 × 104.1 × 71.1 cm

2.2.2 변용된 오브제

일상에서 발견된 오브제를 가공, 또는 해체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오브제를 융복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재해석한 ‘변용된 오브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Fig. 7. Compression Kadett, César Baldaccini, 1978, compressed car, 144 x 65 x 65 cm

프랑스의 조각가로 오브제 조각의 선구자로 알려진 세자르 발다치니(César Baldaccini, 1921 ~ 1998)는 산업사회의 부산물로부터 발견된 오브제인 자동차, 금속폐기물, 볼트, 너트 등의 압축을 시도했으며 때때로 용접 토치 또는 큰 망치를 사용해서 형태를 변형시켰다. 대량생산의 가치에 도전하기 파운드 오브제와 폐품을 수집, 해

체, 확장, 압축, 융합 등의 과정을 통해서 재조립했다. 이것은 단순한 재료의 확장 외에도 파운드 오브제에 새로운 미적 영역을 부여했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Compression Kadett> Fig. 7는 자동차를 해체해서 압축한 작품이다. 이를 통해서 산업 문명 속의 물질, 소비주의 사회의 인간,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의 연관성을 독창적인 조형언어로 풀어나갔다.

영국 조각가 토니 크랙(Tony Cragg, 1949~)은 인간과 물질, 그리고 자연과 문명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표현한다. 그는 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조각의 물질적 형태가 인간의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형성하는지 탐구한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그의 초기 작품은 대량 생산과 소비사회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 폐품들을 채색해서 나열하거나 집적(集積)한 작품이 주를 이룬다. 현대 소비사회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한 이 작품은 새로운 형태의 조형적 질서를 창조했다.

그가 사용한 파운드 오브제에 대해서, “혁신적인 도시 및 산업 폐기물 사용은 조각가 세대를 위한 새로운 영역을 열어 준 발명품으로 처리되었다. 이를 토니 크랙은 '새로운 자연'이라고 불렀다. 그는 산업화 이후 영국에서 환경 및 기타 사회 문제를 열렬히 다루었고, 조형적 형태의 과학용품 (플라스크, 레토르트, 병, 경첩, 천체, 망원경 등)의 배열을 사용하여 자연 세계에 대한 발전과 관심사를 밝혔다.”[12] 라고 한다.

<Britain Seen from the North > Fig. 8은 그가 1981년 영국을 방문했을 때 국가가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느낀 것을 표현했다.[13] 작품에서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플라스틱 폐용기 등 익숙한 물건을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새로운 정서적 반응과 문화적 의미가 재생성되었다.



Fig. 8. Britain Seen from the North, Tony Cragg, 1982, Plastic, wood, rubber, paper and other materials, 440 × 800 × 10 cm

2.2.3 차용된 오브제

‘차용된 오브제’는 파운드 오브제의 형태를 빌어 와서

다른 재료로 복제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대상의 이미지가 작품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작가의 방식으로 가공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것은 금형을 만들어서 캐스팅(casting)하거나 프린팅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에디션(edition) 형식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미국의 조각가 로버트 고버(Robert Gober, 1954~)는 작품에서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 종교, 성(性) 정체성 등을 주제로 표현한다. 작가가 직접 제작한 파운드 오브제의 형태를 차용한 사물과 파편화된 신체와 융합한다. 복제된 파운드 오브제는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와 심리적 불안감, 욕망 등을 은유적으로 암시한다. 형식적인 엄격함과 신중하게 계산된 공간에서 설치된 그의 작품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 동성애와 이성애, 에로틱과 비참함, 끔찍함과 유쾌함 등의 양가성이 나타난다.

고버는 1980년대부터 싱크대 연작을 제작했다. 고버의 싱크대는 파운드 오브제를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미지만 차용한 것이다. 물을 담을 수 없는 싱크대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실 과도 관련이 있다. 이것은 1980년대 뉴욕의 예술계를 멸망시킨 에이즈(AIDS) 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만들어졌다. 고버는, “나는 20세기 미국 최악의 건강 전염병의 진원지에 사는 게이 남성이었습니다. 싱크대는 그것의 부산물이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무엇을 합니까? 당신은 스스로 청소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14] 라고 했다. 이는 그가 창작 활동을 하면서 에이즈 희생자와의 긴밀한 상호 작용을 고려하면서 두려워했던 취약성을 작품에서 드러내고 있다.

<UNTITLED> Fig. 9은 기성품과 구별을 할 수 없을 만큼 석고로 정교하게 만든 싱크대에서 수도꼭지 대신 왁스로 만든 어린이의 다리가 나와 있다. 이는 작가의 어린 시절 불안감을 언급하고 있으며 현실과 환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Fig. 9. UNTITLED, Robert Gober, 1999, plaster, beeswax, human hair, cotton, leather, aluminum pull tabs, enamel paint, 85.1 x 101.6 x 62.9 cm

미국의 도예가 리처드 쇼(Richard Shaw, 1941~)는 파운드 오브제와 똑같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석고 금형을 이용해서 점토를 주입 성형한다. 점토를 소성 후 전사지를 부착해서 상회 소성 과정을 거친다. 실제 사물과 착각할 정도로 세밀하게 재현된 작품에서 회화에서 극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트롬프뢰유(trompe l'oeil) 기법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Artist's House of Cards> Fig. 10은 트럼프 카드, 책, 팔레트 등 익숙한 파운드 오브제의 형태를 빌려서 도자로 만들어진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품에서 사물의 주체는 작가이며 수채화 팔레트는 예술가로서의 작가의 역할을 뜻한다[15]. 따라서 관람자에게 보이는 사물은 이제 더 이상 익숙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작가의 서사(敍事)와 유희적 감성이 초현실적으로 표현되어 일상의 사물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Fig. 10. <Artist's House of Cards>, Richard Shaw, 2003, glazed porcelain with underglaze transfers and overglaze decals, 33.7 x 22.9 x 22.9 cm

앞에서 언급한 파운드 오브제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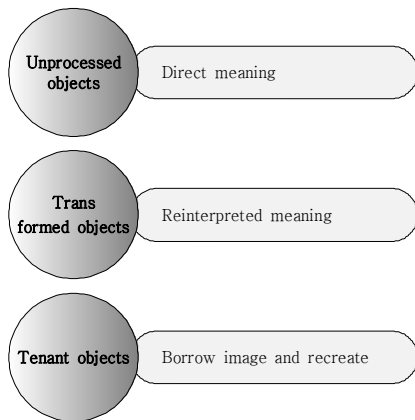


Fig. 11. Type of Found objects

3. 결론

파운드 오브제를 작품에 도입해서 융복합하는 방식은 20세기 초 모더니즘 미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대미술에 매체를 확장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매체의 활용방식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오브제', '변용된 오브제', '차용된 오브제' 등으로 구분해서 오브제의 표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작가가 선택한 익숙한 일상의 오브제에 의미를 부여한 '가공되지 않은 오브제'는 일상을 미술에 개입시켜서 일상과 미술을 동일시한다.

둘째, '변용된 오브제'는 파운드 오브제가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해체, 변형, 그리고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 조형적 개념을 가진 새로운 사물로 변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물이 가진 고유한 본질이 전이 되어 새롭게 의미화되었다.

셋째, 파운드 오브제의 형상을 모방해서 작가의 방법과 재료로 제작한 '차용된 오브제'는 작가의 주관적 사유를 담아서 객관적 사물에 대한 '새롭게 보기'를 시도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파운드 오브제를 융복합한 작품은 대상을 물질적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미술의 전통적 규범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념의 미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앞으로도 그 시대를 반영하는 특성을 지닌 파운드 오브제는 일상에서 작품의 소재로 새롭게 발견될 것이다. 미술에서 파운드 오브제는 다양한 표현을 창출할 수 있는 매체로서 새로운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REFERENCES

[1] Nikos Stangos, (2014), *Concepts of modern art*, Seoul : Munye Publishing.

[2] *found object*, Monthly Art, <https://monthlyart.com>

[3] J. E. Chol, (2018), *Repetition and Multiplicity of Disjunctive Time in Collage: Archival Palimpsests of Robert Rauschenberg, Fred Tomaselli and Christian Marclay*, Hongik University, Seoul

[4] S. E. Lee, (2006), *A study on cooperative learning using object : Based on the fine arts class of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Keimyung University, Dae-gu

[5] H. J. Jin. (2002), *What is an avant-garde*, Seoul : Minumsa

- [6] E. J. Lee, (2018), *A Study on the Meaning of Production in Surrealist Object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Western Art History, 0(48), 7-28
- [7] Y. H. Kim, (2004), *The Adventure of Object Art*, KIM DALGIN ART RESEARCH AND CONSULTING, <http://www.daljin.com>
- [8] Y. T. Park, (2005), *Day to go to the art exhibition*, Seoul : Maeumsanchaeg
- [9] Felix Gonzalez-Torr, THE ART STORY, <https://www.theartstory.org>
- [10] Lisa Phillips, (2011), *THE AMERICAN CENTURY ART & CULTURE 1950-2000*, Seoul : Jian Publishing.
- [11] G. H. Im, (2009), *Empire of creation*, Seoul : Jian Publishing.
- [12] (2009), *CANOE, Tony Cragg*, BRITISH COUNCIL, <http://visualarts.britishcouncil.org>
- [13] (1984), *Tony Cragg-Britain Seen from the North*, TATE, <https://www.tate.org.uk>
- [14] Robert Gober, THE ART STORY, <https://www.theartstory.org>
- [15] KQED, *Welcome to the Web Home of Ceramist Richard Shaw*, Richard Shaw, <http://www.richardshawart.com>

박 경 주(Kyungjoo Park)

[상화]



- 1983년 2월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학과 도예전공(학사)
- 1986년 2월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공예과(석사)
- 1991년 2월 : 뉴욕대학교 대학원 스튜디오아트 전공(석사)
- 2012년 2월 : 홍익대학교 공예학과 도예전공(미술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도예·유리전공 부교수
- 관심분야 : 조형미술, 도예
- E-Mail : jjoo1004@hotmail.com